

각·행동·정보 등의 의식과 감성의 쓰레기도 배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근거리 농산물과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서, 무절제한 소비주의 생활양식에서도 탈피해야겠습니다.⁵⁾ 아울러 일상에서 조금은 불편하게, 느리게, 그리고 소박하게 사는 것을 몸에 익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3) '함께 걸어나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가운데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마르 3,35 참조).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완성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행동과 삶의 기준인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식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마음을 열고 논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함께 걸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황님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여정에 온 교회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하십니다.⁶⁾

교회의 '함께 걸어나는 여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의 결합을 드러내고, 또한 사랑이신 하느님과 교회의 일치,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아울러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열린 마음과 태도의 표징도 됩니다. 순례하며 선교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함께 걸어나는 여정'은 우리 모두가 복음화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와 봉사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의 뜻을 기준으로 교회 안팎의 다양한 문제들을 식별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제 여러분, 교구장 주교인 저와 일치하는 가운데 주님께 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헌신하도록 노력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제들은 이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에게 '양 떼 새 나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의탁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 안에서 그분과 대화하며,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미사를 통해 주님과 일치하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남녀 축성 생활자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적 태도가 짙어지며, 외적 활동에 치중하는 세상에 살

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 수도자들은 더욱 철저히 자기 봉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치는 기도와 '청빈·정결·순명'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임을 통한 협력, 특히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신자들과 이웃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자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요한 1,10-11 참조) 세상 안에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구원의 여정에 동행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도록 합시다. 이 믿음의 힘으로 가정을 비롯한 학교, 직장, 각종 모임, 본당과 지역, 그리고 세상 안에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여정'을 충실히 살아가 주십시오. 아주 작고 소박한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의 작은 신앙의 실천이 복음화의 여정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 다지기'에 더욱 마음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며, 복음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2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두 사제의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열정을 본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일어서기 위해서 올 한 해 다시금 신앙의 기초를 다집니다. 복음화되어, 자신과 교회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복음화하는 여정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노력은 2031년에 맞이하게 될 '교구 설정 200주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신 한국의 순교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정순택

5) 2020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특별 사목 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에 따른 '실천 지침', 참조.

6)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처 2021년 5월 20일 공문(Prot. N. 210114).